

교회소식

1.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이웃을 돌아보며 격려와 위로로 서로를 섬기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2021년 제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좋은 의견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3. 1부 예배 후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1시 30분).
4. 2021상반기 공동 성경읽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지진 등 여러 어수선함 속에 말씀 묵상으로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범위: 구약 사무엘상 22장-사무엘하 11장, 매일 3장).
5.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다음 주일을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실 성도들은 2부 청년 찬양 예배에 참여 바랍니다.
6. 남성을 위한 주일 상설 성경 통독반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1시 30분, 구 아동부실).
7.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실, 1시 30분).
8.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9. 성경 공부반 개강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과목	개강	기간	인원	담당
기도	3월 9일 (화) 오전 10시 30분	11주	9명	이성훈 목사
신앙의 토대 (화상)	3월 9일 (화) 오후 7시 45분	11주	9명	이태한 목사
청지기의 삶	3월 7일 (주일) 오후 2시 45분	11주	10명	이태한 목사

* 기도 과목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 청지기의 삶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중 두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 A R C H

교회사역일지
 3월 7일(주일) 사순절 3
 3월 14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3월 24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8일(주일) 종려 주일 (성찬식)

기도순서
 3월 14일 (주일) 박제용 장로
 3월 17일 (수) 김자경 권사
 3월 21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24일 (수) 김창조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이선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소진, 박해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10호 2021.03.07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찬양		인도자
예배로부름	히브리서 13:15-16	인도자
찬송	31장	다함께
찬송		다함께
찬송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5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정인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19:1-14	인도자
찬양대 찬양	주 예수내 삶을 변화시키네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태한 목사
찬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님들께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한 여름(건기철)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무척 덥고 가뭄이 심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 아래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총 확진자가 150만 명이 훨씬 넘어섰고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동력을 잃어가기 정부에서 이달부터 레벨 1로 완화하여 많은 규제가 풀렸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레토리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인 선교사 한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하나님 품으로 가셔서 한인사회는 물론 선교사회도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2월 사역 내용을 나눕니다.

주일예배: 수요일 저녁 기도회 및 주일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바람직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격려 및 위로: [시포가지, 24]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교회 아동부를 잘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조오, 32 & 윌리엄, 44] 모잠비크, 말라위 인접국에서 온 외국인들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신실하게 나오고 있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밀라, 45 & 와루토, 16]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는 이들 가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리바디, 26] 경찰 공무원으로 멀리 발령을 받았으나 다시 교회 근처로 돌아와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지 주변 및 기타 소식: [Covid Town]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폭동으로 형성된 마을을 Covid 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도 화장실도 없이 정부에서 물탱크로 물을 공급하고 간이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가로등에서 도둑 전기를 끌어 쓰고 있어 안전에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들이 총기를 빼고 무참히 살해당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현지 교인이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실천하도록.
2.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철저히 신뢰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김은희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2:8-15
설	봉	Sermon	성도가 각각 힘쓸 일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2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2021년 2월 28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16-24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자기의 왕과, 자기의 민족과, 직업과 사상을 버렸습니다.

1) 라합은 구원의 줄을 기억했습니다(18): 정탐꾼들이 창문에 매라고 한 붉은 줄은 허룻밤 사이에 구원과 죽음을 결정했던 유일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요 1:29).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계 7:10).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요 14:6).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요단 저쪽의 여러 왕들을 굴복시킨 일들을 듣고(수 2:10) 곧 마음이 녹았습니다(2:11). 그러나 그들은 듣고 잊었으나 라합은 잊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라합처럼 구원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2) 라합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19): 정탐꾼들은 집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이며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구원이 시작되는 곳, 믿음이 성장하는 곳, 신앙을 격려하고 격려 받는 곳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령기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히 10:25).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행 4:12).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며 독선이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수 6:25).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삽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며 구원을 얻습니다.

3) 라합은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21): 라합은 정탐꾼을 보낸 후 바로 줄을 매달았습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긴 후에, 돈 좀 번 후에, 자녀 교육을 시킨 후에 구원의 줄을 매달려고 하다가는 늦습니다. 지금 바로 구원의 줄을 매야 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엡 5:16). 바로 행동한 라합의 모습에서 그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히 11:31). 라합처럼 세상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라합이 보여준 행동은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잊고 살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후손과 이웃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2. 새로 편성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교제의 폭이 넓어지도록.
3.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종식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잘 협력하도록.